



여수 송기홍



영광 서화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정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광양시, 꽃가루 발아율 검정 서비스로 명품 참대래 육성

## 우량 꽃가루 인공수분용 사용 지도 계획

광양시는 고품질의 명품 참대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꽃가루 발아율 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광양에는 21.8ha면적에 54농가에서 참대래를 재배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참대래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대래는 발아율을 검정한 후 적정량의 꽃가루와 증량제(석송자)를 섞어 수정해야 안정적인 수정으로 착과를 유도하고, 꽃가루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만 발아율 검정을 위해 순천대학교나 배양연구소 등에서 검정을 해 왔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발아율 검정을 하지 않고 꽃가루와 석송자를 1:5~1:10정도로 혼합해 사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꽃가루 발아율 검정기술을 익혀 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종합검정실에서 지난해 채취해 사용하고 남은 꽃가루의 발아율을 검사하고, 활력화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

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참대래는 암수 따로 인 과수작물로 수술의 꽃가루를 채취해 암술머리에 뿌려주는 인공수분을 해야 고품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발아율이 높은 꽃가루로 인공수분을 하면 착과율을 높여 냉해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할 수 있다"며 "종합검정실에서는 발아율 검정뿐만 아니라 토양, 농업용수 중금속, 퇴비 등 다양하게 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해서 혜택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천년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4천1백억여원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있는 정원의 도시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됐다.

전남대학교 조사연구에 의하면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져다 준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4116억여원으로 추산했으며, 정원 관련 일자리 250여 개 창출, 도시 브랜드 상승 등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개장한 이후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61만명이 방문, 단일 관광지 방문객수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총 수입이 153억 5천만원, 운영경비 153억 3천만원으로 개장 이후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수입 증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사적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2017년에는 91억원, 2018년에는 101

억원을 교부 받는 등 순천만국가정원이 연간 보통교부세 100여억원을 추가로 안겨주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중심 관광지로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살아가게 하는 순천의 천년 공간이 됐다.

앞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정원자재 유통 판매장, 정원수 공판장 등 정원 잡플러스터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만관리센터 장영휴 소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운영과정에서 투입한 시 예산은 운영경비가 아닌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진입교량설치, 주차장신설, 정원지원센터 조성 등)에 투자한 사업비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농협화순군지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내달 5일까지 홈플러스 하남점에서 화순군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의 대표 농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딸기, 대추토마

토, 파프리카, 미니리,버섯등을 시중 가격 대비 10~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물 입점할 계획이다.

특히, 홈플러스에 선보인 미니파프리카는 평균 11~12브릭스로 일반 파프리카(7~8브릭스)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항산화효과 또한 일반 파프리카에 3배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최근 웰빙 식품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천국)는 "직거래장터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는 생산자들의 탄생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양시, 관광객 400만 유치 넘는다

광양시가 올 한해 관광객 유치 목표인 320만 명을 넘어 4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광양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기준 128만 명보다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220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의 큰 요인으로 시는 남도의 볼거리를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 볼거리인 '제20회 광양매화

축제'에 1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비성수기인 1~2월에도 이순신대교와 광양만 야경조망 명소인 구룡산 전망대에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는 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레일연계 상품과 GS홈쇼핑 관광상품, 여행사 및 파워블로거 캠퍼 등과 함께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160억 원을 투자해 중미중심권에 경관 보도교와 삼화삼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진월면 망덕리~다압면 금천리 섬진강변 일원에 총 85억 원을 투입해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인 조와이어, 명품카로수길 조성 등 자연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나주시, '빛가람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나주 혁신도시 호수공원, 배메산 일원에 도심 속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숲 체험 전용 공간이 마련된다.

13일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이달부터 혁신도시 호수

공원, 배메산 일원(빛가람동 346-1) 27,000㎡에 '빛가람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산림청 지역발전사업 유아 숲 체험원 조성분야 선정에 힘입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3억 원(국, 시비 각각 50%)을 투입, 배메산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과 놀이, 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교실공간을 조성한다.

주요시설로는 △숲속놀이터(징검다리, 나무오르기, 사면놀이대, 모래·흙·우드칩 놀이터, 인디언 집,

곤충의 집, 보물찾기), △숲속 교실, △유아실수, 초화원 길, △모험활동 놀이터(가미줄 타기, 밧줄놀이), △숲속 캠퍼(그물잡대, 데크평상) 등이 있다.

인공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을 지향하는 유아 숲 체험원은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유아) 방문객 및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의 숲 체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11일 기공식이 열렸던 금성산 '국립 나주 숲 체험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나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2018 전남 친환경디자인전' 순천 개최

순천시가 전남 경관·디자인·광고물 통합 전시행사인 '2018년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남 친환경디자인전'은 도내 경관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전라남도도 시·군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공디자인 전시관, 행사장,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번 선정에서는 순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700년 골목문화예술 투어 등과 연계한 행사장 운영으로 행사 적합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종영 기자

재생 선도사업으로 완성된 각종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행사에 필요한 전시관, 행사장,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번 선정에서는 순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700년 골목문화예술 투어 등과 연계한 행사장 운영으로 행사 적합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종영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강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